

# 現代生活과 圖書館

—圖書館週間に 強調하고 싶은 말—

趙 載 厚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文教部 및 公報部の 後援을 얻어 오는 4月 12일부터 4月 18日까지의 一週日 동안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圖書館週間」을 設定하여 國民生活에서 圖書館이 맡은바 使命의 重要性을 認識시키려는 運動을 갖게 되었다.

도리켜 보건데 우리 周圍에서는 아직도 圖書館하던 책을 많이 모아두는 「書庫」로 또는 책을 빌려주는 곳, 程度로 생각하고 있는 傾向이 支配的인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圖書館은 이미 새로운 生活, 새로운 時代를 創造해 나가는데 있어 不可缺의 重要한 機關으로 認識되어 있으며 實際로 그 나라, 그 地域社會의 住民의 生活와 密着하여 文化生活의 向上과 產業의 振興을 爲한 研究調査를 하고 教育을 도와주며 現代市民生活의 核을 이루고 있으며 國家發展에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이러한 點은 故 “케네디” 美國大統領이 1963年 1月29日 議會에 보낸 그의 「特別教育敎書」中에서도 指摘되어 있다. 그는 「圖書館의 門은 開放된 우리社會에 있어서 가장 豊富한 寶物이 있는 곳으로 通하고 있다. 그 寶物이란 即 知識의 힘이고, 生産的인 職業에 必要한 素養과 技能이요, 生活를 豊富하게 하는 英智와 理想과 教養인 同時에 波瀾 많고 變化가 無常한 世上

에서 模範的인 시민이 되는 要件으로, 社會에 對한 創造的이고 自主的인 理解의 힘이 된다」라고 하여 오늘날의 圖書館은 教育과 더불어 現代生活에 必要한 온갖 知識을 獲得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萬岩 現在의 全世界의 文明이 하루저녁에 壤滅되었다고 假定하였을 때에 最良의 圖書館만이 남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짧은 時間에 모든 文獻을 利用하여 오늘날과 같이 機械, 原子, 文化를 再建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必要한 圖書館資料를 어떻게 찾아서 利用할 것인가 할때 이 問題는 두말할 必要없이 손쉽게 찾아서 利用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再建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려가라고 있다.

이와같이 오늘날의 圖書館은 우리의 生活를 擴大하여 나아가는 「열쇠」로서 現代生活의 指標인 「無知의 追放」으로 새로운 時代와 社會를 形成하여 가는데 重要한 使命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貧困의 打破」를 爲하여 이웃 나라에서는 「生産性向上運動」을 展開하여 커다란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例로서는 公共圖書館에 産業資料室을 設置하여 産業技術에 關한 情報과 特許關係文獻을 取扱하고 있으며 各企業

體는 이 公共圖書館의 產業資料室을 中心으로 「科學技術文獻利用振興會」를 組織하여 生産活動에 直結된 새로운 情報를 活用하는데 努力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美·日安條約締結에 있어 國內輿論이 沸騰하였을 때만 하여도 公共圖書館은 그 條約에 關한 正確한 資料를 國民에게 빠르게 傳해 줌으로써 國民들이 옳은 判斷을 할 수 있게끔 한 例도 있다.

그러나 「圖書館資料를 올바르게 찾고 効果的으로 利用하는 일은 마치 醫師가 病을 珍斷하고 手術을 할 수 있는 專門知

識과 技術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圖書館의 司書職도 正規의 教育을 받아야만 向上이 可能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우리 周圍에서는 圖書館施設도 未備한데다가 圖書館運營과 資料의 밝은 知識을 가진 專門職司書도 不足할 뿐만 아니라 學校教育에 있어서도 圖書館利用指導問題는 全 혀 配慮되어 있지 않은 實情이니 우리의 生活革新을 爲한 問題點의 하나가 바로 圖書館育成에 있음을 첫번째 마지하는 圖書館週間に 즈음하여 밝혀 두는 바이다.

(筆者：釜山市 教育研究所員)

## 韓國十進分類法 — 相關索引附 —

〈菊版, 模造, 洋裝 700面 1,000部 限定版〉

1964. 5. 30 發行豫定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나라의 分類法에 依하여 分類하면서 큰 不便을 느껴왔다.

우리나라 事情에 맞게 知識과 學問을 類綱目으로 體系化한 分類法이다.

購入을 希望하시는 분은 5月 末日까지 協會로 注文하시어.